

봉선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강설대법회 입제하던 날

대중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다.

그 첫 만남이 9월 16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설법전에서 있었다. 봉선사(주지 철안)와 '현대 불교(사장 혜월)'가 공동으로 마련한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 10대 강백 초청 강설대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봉선사 신도, 지역주민, 타지역에서 온 불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과연 선(禪)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까? '불립문자'라야 '견성성불'일까? 이 시대 최고의 강백(講伯)들이 이 말에 임치이라도 가하듯 산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부대중과 만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의 높고 깊은 경지를

經典

그 넓고 깊은 세계로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구하러 1500여 대중 새로 발심



지관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메모하는 한 비구니스님.

지관 스님은 법상에 오르기전 행사 진행자들에게 “서서 강의하겠다”며 ‘침판과 분필’을 요구해 잠시 청중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러나 그 요구가 ‘윤허 스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월운 스님 앞에서 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임을 간파한 봉선사 스님들은 더 정중한 예를 갖추어 지관 스님을 법상에 모셨다. 청중들은 1부 입제식에서 월운 스님이 “종단의 수장으로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지관 스님이 법문을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한 말을 기억하며 두 원로스님들의 우정을 큰 박수로 찬탄했다.

“참선만 한다고 해서 견성성불 오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 속에 성불하는 참선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종은 이번 법회에 공지를 갖고 위촉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전에 의지해 수행해서 깨칠 수 있는 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포교와 중생교화에 목적을 둔다면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루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봉선사 강설대법회의 첫번째 강백으로 법상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법석에 올라 가장 먼저 “조실스님께서는 방으로 가 쉬시고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공부에 바쁘실테니 가셔도 된다”고 말해 청중의 박장대소를 이끌어 냈다. 한바탕 웃음 뒤에 법석은 다시 숙연해졌고 지관 스님은 경전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법문을 시작했다.

지관 스님은 법문 서두에서 <금강경> 번역과 관련된 많은 연도와 역경자를 정확히 기억해 ‘대강백’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집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것이 <금강경>인데 여지껏 입으로만 독송했지 이렇게 심오한 사상이 들어 있는 지 미처 몰랐습니다. 의미를 곱씹으며 독송하면 기도도 잘 될 것 같아요.” <김정은 · 3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법문을 들으며 <금강경>이 한층더 친근감 있게 다가온다고 한 거사는 고개를 연신 끄덕인다. 70대 한 노보살은 두꺼운 돋보기 너머로 열심히 스님의 법문 받아 적는 사연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문 듣는 것도 일종의 수행 정진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메모하고 여러 번씩 읽고 생각해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참선 못지않은 중요한 수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전의 맛을 조금 안 대중이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입제식에는 철안 스님(봉선사 주지),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등 (앞줄 오른쪽부터)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설법전 밖에서 대형 빔프로젝트를 통해 공부하고 있다.

특 경적하려는 듯 지관 스님은 법문 마무리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기도 했다.

“경전을 혼자 음미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훑히 꿰뚫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박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얌을 박사, 죽을 사자가 박사예요. ‘죽도록’ 공부하세요. 경전 박사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불자들의 얼굴엔 새롭게 발심하려는 힘찬 기운이 역력했다.

봉선사 강설대법회는 한국 불교계 최고 강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전수행의 정수를 전하는 자리다. 각 경전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을 간단으로 삼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안에서 열차를 타고 여러번 버스를 갈아탄 끝에 참석한 정성어린 불자도 있었다. 동국역경원 박종린 과장이 이끄는 열불수행팀 12명은 주말의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법회에 참석했다. 부인과 손자 등 셋이 참석한 김중성 거사(73 ·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는 “손자가 일곱 살이라 법회가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훗날 성인이 됐을 때 이 법회에 합하여지 할머니와 함께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람있어 했다.

입제식과 지관 스님의 법문, 진월 스님(동국대 교수)과 이광대 교수(충남대 철학과)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지관 스님의 답변으로 3시간 가까이 법회는 이어졌다. 설법전이 비좁아 500여명 정도는 야외에 마련된 자리에서 법문을 경청했다. 경전을 공부하고자 주말 휴식의 달콤함도 뿌리치고 한걸음에 달려온 이들에게 불편한 자리쯤은 아무 걸림돌도 되지 않았다.

오후 5시, 강의는 끝났지만, 경전 수행을 발심한 불자들은 다음주를 기약하며 힘찬 발걸음으로 일주년을 나갔다. 다음주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며.

글=김주영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설법전’은 <금강경>의 ‘공(空)도리’를 알고자 하는 불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법회 이모저모

▶ **유모차 밀며 온가족 청법 나들이**
토요일 오후, 초가를 봉선사는 가족 단위 불자들이 붐볐다. 이 중 단연 압권은 유모차 부대. 9개월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법회에 동참한 김명숙 불자(32 · 의정부시 호원동)는 연신 즐거운 표정. 평소 빡빡 힘든 대강백 스님의 법문도 듣고 봉선사 참배도 하고 ‘일거양득’ 신행을 하게 됐다면서...

▶ **설법전만 강의실? 처처가 강의실**
설법전에 들어가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빔프로젝트와 대형 스피커가 법회 영상과 소리를 사찰 구석구석까지

전했기 때문이다. ‘처처강당(處處講堂)’ 불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법회현장에서 실감하는 눈치였다.

▶ **사하촌서 1500인분 국수공양**
봉선사 중무소앞에는 사하촌 주민들이 법회 참석자들에게 국수를 대접하기 위해 야외 천막 식당을 임시로 차렸다. 뜨거운 온정을 담은 국수는 무료라 반가웠고 국수맛 또한 일품이라 두 그릇씩 먹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 **원만회향 발원 50여명 철야 정진**
법회가 끝난 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설법전에서 봉선사 신도회와 박종린



51 · 동국역경원 편찬과장직씨가 이끄는 열불수행팀 등 50여명이 철야정진을 했다. 강설대법회의 원만 회향을 지원하는 정진이었다. 철야 정진 수행으로 환희심을 맞은 신도회측은

박종린씨에게 철야정진을 매월 한차례 정례회 하기로 제안하기도 했다.

▶ **‘앞으로 주요 경전들 공부하겠어요’**
“경전이 어려울수록 알았는데 조목조목 그 구성과 경전 탄생 배경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중학교 교장을 정년 퇴임한 김정삼(68)씨는 우리 시대 최고의 강백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더욱 귀에 속속 들어온다고 즐거워 했다.

강진영 교사(45 · 경기도 양평중학교)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잘 실천하다보면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홉번의 법회도 모두 참석하고, 이년을 계기로 불교의 주요 경전들을 적극적으로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고 밝혔다.

▶ **비천상 현수막...축제분위기 물씬**
봉선사로 가는 장현리 길목부터 설법전까지 곳곳에 강설대법회 현수막이 걸려 있어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청풍루앞에는 10대 강백들의 사진과 비천상 무늬의 현수막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전통사찰다운 품위있는 디자인의 이채로운 현수막을 보며 ‘역시 봉선사는 다르다’며 감탄.

열침의효능 — HEALTH BELT

금강약돌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식약청 의리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발생기 : A83060호
전기용품 안전 인정 : HH107236-5004A호

- 전자파 정해실험필
- 전자파 환경인증
- 상상화재 배상보험 가입
-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불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등불 금강약돌입니다. 다년간 건강제품에 열침을 바쳐온 본사에서서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 3대 특산물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가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C 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체내의 노폐물 배출 및 체지방 분해로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등에 탁월하며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백혈구가 증가하여 면역성이 강해지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뒤 후회를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건강은 더욱더 위협받고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 암세포는 42.5°C라는 보통 세포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6년 12월 20일 일본 동북대 학생신문(산과수 발표기)시 발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영 ※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식약청 의리기 인증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염, 피부염, 복부지방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개선,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 대증수상, 숙취, 암예방에 효과적이다.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비교내용	유사품(세라믹, 맥반석 등)	금강성 온열복대
전기열선온도	70°C 미만	95°C - 100°C
접촉외부온도	50°C 미만	1시간이내 70~80°C, 1시간후 80°C 유지
복사에너지	가열시 복사에너지의 신체 투과율이 약하고 뜨겁다. 외부온도 50°C로는 복사에너지가 신체 깊숙이 들어간다. (체온까지 42°C 이상의 열이 도달) 1시간 착용시 오장육부의 활동력이 떨어진다.	외부온도 70°C 이상일 때 복사에너지가 신체 깊숙이 들어간다. (체온까지 42°C 이상의 열이 도달) 1시간 착용시 오장육부의 활동력이 떨어진다.
원적외선	상온(약40°C)에서 방사량이 90%가 안되며, 90%이하인 경우는 신체의 기를 오히려 빼기 때문이다.	상온(약40°C)에서 93%, 50°C에서 95%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원소가 60여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용이온	대체적으로 1cc당 500미만의 음이온을 낸다.	1cc당 1,000-1,5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